

‘문밖의식’으로 바라본 도시화

-박완서 문학과 서울-

송은영*

〈차례〉

1. 역사의식으로서의 당대의식 : 박완서 문학과 자본주의 도시
2. 정주와 이탈의 이중적 힘, “문밖의식”
3. 위협받는 문밖의식 : 공포의 전쟁체험
4. 공포와 혐오의 경계 : 도시 중산층의 자의식
5. 역사적 증언으로서의 박완서 문학

〈국문초록〉

박완서는 현대 한국사회의 본격적 자본주의화를 따라 급속하게 진행되는 도시화와 일상생활의 변화를 꾸준히 재현해왔다. 그 근거에는 어머니와 딸의 관계에서 비롯된 도시 이주 경험과 한국전쟁의 체험과 같은 과거의 경험 속에서 체득한 역사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그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문밖의식’은 서울 문안에 새로운 안전지대를 만들어 정주하려는 구심적 의식과 서울의 중심인 문안과 거리를 두고 바깥으로 향하는 원심적 의식의 결합이다. 이 이중적, 양가적 의식은 현저동을 통해 형성되어 박완서의 서울 체험과 도시공간에 대한 시선을 좌우하게 된다. 아울러 한국전쟁은 문밖의식의 한 측면인 뿌리내림의 욕망을 위협하는 공포의 체험으로, 안정된 생활을 지향하는 체제 내적 욕망과 생존경쟁의 장인 서울에 대한 비판적 혐오를 동시에 형성하는 역사적 원체 힘이었다.

박완서의 1970~80년대 소설이 끈질기게 천착하는 자본주의 도시의 현실은 이러한 역사적 체험과 역사의식에 근거하여 재현되고 있다. 도시의 급속한 자본주의화를 바라보는 박완서 문학의 시선은, 여러 풍속들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내적 공모자 같은 태도를 일면 보여준다. 그러나 박완서는 도시개발 논리를 부추기는 힘이 국가의 강제적인 도시정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공포와 이후 생존경쟁의 장에서 형성된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추악한 물질적 욕망이 이를 증폭시킨 원인이라는 점을 포착하고 있다. 아울러 이윤추구를 향해서 움직이는 도시개발이 역사에 대한 망각을, 체험과 기억의 소멸을,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억상실, 그 땅 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삶에 대한 망각을 동반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핵심어 : 박완서, 문밖의식, 대체낙원, 양가성, 정주욕구, 현저동, 한국전쟁, 생존경쟁, 자본주의 도시, 무장소성, 망각과 재난으로서의 도시화

1. 역사의식으로서의 당대의식 : 박완서 문학과 자본주의 도시

40여 년에 걸쳐 축적된 박완서의 문학세계는 한국 현대사에서 대중들의 일상과 풍속과 의식을 아우르는 문학적 증언이다. 유려하게 술술 읽히는 박완서의 문장들 속에는,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재현된 식민지 지배와 한국전쟁,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한국 현대사의 유장한 흐름을 타고 살아가는 다양한 인간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 박완서가 문학적으로 재현한 그 세계는 매우 광대해서, 유일한 역사소설 『미망』까지 포함하면 구한말부터 2000년대까지 현대사 100년이 넘는 시기를 포괄할 뿐 아니라, 다양한 계급, 신분, 연령, 지역을 아우르는 인간들의 삶을 넘나든다. 시골과 도시변두리의 서민에서부터 평범한 중산층과 최첨단 상류층의 풍속까지, 그리고 자의식이 꿈틀거리는 주부에서부터 삶의 무게에 허덕이는 가부장과 노년의 쓸쓸한 회한, 풋풋한 젊은이들의 내면에 이르기까지, 박완서가

* 연세대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재현한 다채로운 인물들은 제각기 이 시대의 역사, 사회, 풍속을 보여주면서 현대사의 흐름을 증언하고 있다.

박완서 문학이 보여주는 이 넓은 세계는, 거칠게 어림잡아볼 때 한국전쟁의 체험과 가족사적 비극, 모성과 여성성 또는 젠더의 문제, 산업화가 낳은 도시의 세대풍속과 물질만능주의적 현실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박완서의 문학세계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 키워드들은, 종종 작가의 자전적 체험이 허구적 재현들의 근저에서 발휘하는 사실성과 진정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되곤 했다. 그것은 작가 박완서가 스스로 보고 듣고 겪은 것들을 사회현실의 변화와 대결하면서 반추하고 역사적 차원에서 재구성했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박완서의 문학이 “가장 진실되게 씌어진 20세기 한국의 생활 풍속사적 의의를 지니는 작품”이며 “당시의 삶과 사회가 역사적 자료로서 이미 정형화된 것들보다 훨씬 풍성하고 소중하고 자상하고 진실된 인간적 증언으로 담겨 있다”는 평가¹⁾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박완서가 재현한 당대적 현실, 즉 한국 사회가 급격한 자본주의화 과정이 낳은 도시화와 그것이 빚어낸 일상적 현실의 양상들은 그녀의 문학세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의 체험 또는 모성과 여성성, 젠더의 문제만큼 깊이 있게 다뤄진 것 같지는 않다. 도시화가 일으킨 삶의 공간들의 변화와 자본주의적 논리의 광범위한 침투가 낳은 왜곡된 욕망의 문제는, 박완서가 1970년대 중반 이후 비로소 작가적 역량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만큼 집요하게 천착한 문제이자 창작활동 내내 한 번도 등한시하지 않은 주제이다. 이 주제가 박완서의 소설세계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만큼 여기저기서 조금씩 논의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박완서가 포착한 산업화 시대의 현실은 본격적으로 해부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박완서가 1970년대부터 당대 풍속을 소재로 삼아 발표한 소설

1) 이남호, '그때 거기에 있었던 아픔과 아름다움에 대하여', 『그 산이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 박완서, 웅진, 2005, 359~360쪽.

들은 당대의 “현실에 거의 정면으로 맞부딪치고 있는 작품”들이며 “강한 현실감”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²⁾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평가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언필칭’으로 반복되는 키워드들로 단순화되곤 했다. 그러나 박완서 문학의 역사적 의미는 “황금만능주의의 일방통행”, “신분 상승의 환상”, “중산층 여인들의 삶”³⁾ 등등 몇 가지 단순한 수식어들로 용해되지 않는 생생한 인물들의 삶이 빚어내는 구체적 삶의 세목들과 실감의 당대성에 있다. 그 일상적 현실의 풍요롭고 자세한 풍속도는 100년 전의 낯설고 망각된 풍경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도처에서 발견되는 현재진행형의 현실이다.

이 글은 박완서가 작품 활동 내내 끈질기게 당대의 도시적 삶의 문제에 천착한 이유와 그 시선의 기본원리는 무엇이였을까, 그리고 과연 도시 현실에 대한 작가적 관심이 지금까지의 논의에서처럼 여성들의 삶이나 한국전쟁과 같은 문제와 분리되어 있는 것일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박완서가 당대 현실의 관찰과 실감 있는 재현에 집착했던 것은, 당대 현실을 역사적 의식으로 끊임없이 반추하는 작가적 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 한국사회의 본격적 자본주의화를 따라 급속하게 진행되는 도시화와 그로 인한 일상생활 속의 병리에 눈을 떴지 못한 이유가, 어머니가 딸에게 강제한 도시로의 이주와 한국전쟁과 같은 역사적 경험 속에서 체득한 의식의 활동과 겹쳐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은 한국 사회의 급속한 자본주의화를 바라보는 박완서의 시선이 도시공간에서의 체험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보고, 한국 현대사의 생생한 현장으로 그녀가 체험하고 관찰했던 서울이라는 도시공간의 문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서울은 박완서 문학에서 어머니가 딸이 “신여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이주시켰던 장소이자, 이후 딸이 평생 동안 식

2) 김주연, '순웅과 탈출', 『변동사회와 작가』, 문학과지성사, 1979, 119쪽, 122쪽.

3) 김주연, 앞의 글, 122쪽; 성민엽, '윤리적 결단과 소설적 진실', 『지성과 실천』, 문학과지성사, 1985, 124쪽; 이남호, '<말뚝>의 사회적 의미', 『문학의 위족 2』, 민음사, 1990, 133쪽에서 각각 인용.

민지 지배와 한국전쟁과 산업화 과정을 압축적으로 체험하고 관찰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나갔던 장소이다. 193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 현대사 70년이 서울을 중심으로 박완서 문학의 핵심적 주제로 녹아 있는 셈이다. 1970년대 이후 본격화된 한국의 자본주의화와 도시화의 흐름을 바라보는 박완서의 시선을 도시공간 내에서의 역사적 경험과 관련시키는 것은, 당대 현실에 대한 증언으로서 박완서 문학의 의미가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배금주의적 사회풍조, 중산층의 속물성과 허위의식, 계급상승을 노리는 경제적 욕망에 대한 즉물적 비판이라는 차원을 벗어나 더 넓은 역사적 의미망 속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2. 정주와 이탈의 이중적 힘, “문밖의식”

박완서의 소설 전편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도시 체험은 박적골에서 벗어나 서울로 가는 길목에서 처음 바라본 송도의 풍경이다. 「엄마의 말뚝 1」에서 송도를 내려다보는 딸의 내면은 위축감과 기대감이라는 다소 상반된 감정의 교차를 보여준다. 딸은 “대처의 변화(繁華)가 맹종(盲從)하고 있는 길서가 나를 주눅들게” 하지만, 동시에 “처음 보는 송도는 아름다웠다. 아마 서울은 더 아름다우리라”고 기대한다.⁴⁾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 그 이질적 감정의 교차, 강렬하게 빛나는 유리창으로 가득한 “송도를 처음 보고 느낀 황홀감도 받은 실은 불안감”이라는 서술 속에서 더 자세하게 보완된다. 그것은 “떨어놓고 이끌리면서 한편 뒷걸음질치고 싶”은 마음 또는 “전혀 이질적인 두 개의 세계의 경계에서 있는 것처럼” 느끼는 막연한 의식이다.⁵⁾ 몇십 년이 지나 문학적 허구

4) 박완서, 「엄마의 말뚝 1」, 『엄마의 말뚝』, 세계사, 1994, 각각 19쪽, 22쪽.

5)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웅진출판, 1992, 41~42쪽. 이후 『싱아』로 표기하고 본문 속에서 쪽수만 표시함.

속에서 윤색되어 등장한 작가의 첫 도시체험은, 유년의 박완서가 느꼈던 실제 그대로의 기록이라기보다는 실상 그간의 경험 속에서 도시화를 향해 형성된 이중적 시선의 투영이라고 봐야 한다. 스쳐지나간 도시에 대한 이 첫 인상에서 감지되는 이중적 의식이 이후 서울의 도시화를 바라보는 작가의 재현 속에서 줄곧 반복되기 때문이다.

도시적 삶의 경계에서 이끌림과 물러나고 싶음을 동시에 느끼는 이 의식을 박완서 소설의 중심적 기제로 정착시킨 장소는 바로 서울의 현저동이다. 「엄마의 말뚝」 연작,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현저동은, 이후 서울의 역사적 변화를 바라보는 박완서의 의식을 형성하는 원형적 장소이다. 이곳은 오빠를 데려간 것으로도 모자라 딸을 ‘대처’로 데려가 교육시켜 신여성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어머니의 의욕이 현실과 타협한 장소, 다시 말해 어머니가 딸에게 삶의 운명으로 지정한 장소이다. 또한 이곳은 박완서에게 도시에 마음을 붙이고 정착하는 방법과 도시 안에서 더 나은 곳으로 이동하려는 욕망을 가르쳐준 장소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현저동은 “비록 문밖이긴 하지만” 서울에서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고 정착한 곳이다.⁶⁾ 가족은 해방 이후 문안인 신문로에 집을 마련하고, 한국전쟁 전후에 삼선교와 돈암동 집 등 여러 집을 전전하지만, 어떤 집도 현저동의 이 “괴불마당집”만한 장소성을 지니지 못한다.⁷⁾ 이 집

6) 이 현저동에서 가족이 머물렀던 집은 세 곳이다. 처음에는 “오랫동안 이영을 잊지 않아 수시로 노래기가 기어나오는 초가집 문간방”(29쪽)이었고, 두 번째는 금융조합의 융자를 받아 처음으로 구입한 집으로 “세들어 살던 집에서도 오르막길로 더 올라가 동네가 인왕산 마루턱을 치받으면서 끝나는 데 있는 여섯 칸짜리 작은”, “그러나 어엿한 기와집”(48쪽)이며, 세 번째는 총상을 입은 오빠 때문에 한국전쟁 당시 피난을 갈 수 없게 되자 임시로 문을 따고 들어간 집이다. 인용은 「엄마의 말뚝 1」 참조.

7) 박완서는 “서울에서 그 후에 거친 수많은 집의 주소를 거의 다 잊어버렸지만 현저동 46번지의 418호란 내 최초의 주소는 여태껏 안 잊어버리고 있다”고 고백한다.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웅진, 1992, 53쪽.

에서 생겨난다.⁸⁾ 이 집은 이 동네에 상것들만 산다고 무시하던 엄마도 “대견해서 어쩔 줄 몰랐”던 집이며, 오빠 역시 겨우 장만한 이 집의 “축대가 무너질까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집이다(48~49쪽).

현저동의 특별한 장소성은, 단지 ‘처음’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도시공간 자체가 지닌 주변성에서 비롯된다. 현저동은, 문밖에 있던 옛날이나 지리적으로 서울의 중심부와 매우 가깝게 위치하게 된 지금이나 서울의 중심부라고 할 수 없는 장소이다. 엄마로부터 목적지가 ‘현저동’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경멸”의 눈초리를 보내는 지계꾼을 힘들게 따라 올라가면서, 딸이 처음 목격한 이 공간의 풍경은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이상한 동네였다. 시골집의 한데 뒤틀간만한 집들이 상자갑을 쏟아부어 놓은 것처럼 아무렇게나 밀집돼 있었다. 내가 송도라는 대처에서 최초로 목격한 것도 사람과 집들의 이런 밀집상태였다. 그러나 나를 압도하고 주눅들게 한 건 밀집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다스리는 질서였다. 질서란 밀집에 아름다움을 부여하는 그 무엇이었다. 그것이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 제멋대로 방목되었던 계집애를 한눈에 주눅들게 한 것도 사실이지만 한눈에 때혹한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엄마가 말없이 허위단심 기어오르고 있는 동네엔 그게 없었다. 그래서 더럽고 뒤죽박죽이었다. 길만 해도 당초에 길을 내고 집을 지었다면 그럴 리가 없었다. 집이라기보다는 아무렇게나 쏟아놓은 상자갑더미의 상태를 달리 고쳐 볼 엄두를 못 내고 체념한 주변머리없는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먹이를 물어 들이기 위해 가까스로 내놓은 통로가 길이었다. 상자갑만한 집들이 더러운 오장육부와 시끄러운 악다구니까지를 염치도 없이 꾸역꾸역 쏟아 놓아 더욱 구질구질하고 복잡한 골목이 한없이 계속됐다.”(「엄마의 말뚝 1」, 28쪽)

8) “한 장소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세상을 내다보는 안전지대를 가지는 것이며, 사물의 질서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확고하게 파악하는 것이며, 그리고 특정한 어딘가에 의미 있는 정신적이고 심리적 애착을 가지는 것이다.” 에드워드 렐프,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형 외 옮김, 논형, 2005, 95쪽.

길을 따라 집이 지어진 게 아니라 소위 ‘하꼬방’ 사이에 간신히 통로나 있는 이 서울풍경이 어머니와 오빠, 딸이 기대하던 대처의 모습이 아니었으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현저동은 어머니가 강조하던 ‘문안’이 아니라 언젠가 진짜 서울인 ‘문안’으로 입성하기 위해 거쳐 갈 중간지점 정도로 생각했던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려하고 세련된 도시의 전형적인 모습과 정반대인 이 무질서한 풍경이야말로, 도시와 구별되는 고향의 형상을 도시 안에서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된다.

현저동의 집과 동네는 ‘박적골’과 비교되고 그 장소를 대체하면서 가족들이 재구성한 서울 안의 새로운 고향이다. 딸은 박적골의 뒤란처럼 넓지 못해도 “괴불마당에 분꽃씨도 뿌리고 채송화씨도 뿌리고 봉숭아씨도 뿌렸다.” 그리고 인왕산에서 고향에 ‘그 많던 싱아’ 대신 ‘아카시아’를 씹고, 박적골의 ‘실개천’ 대신 “인왕산 골짜기를 흐르는 맑은 물”에 발을 담그고, 박적골처럼 “넓은 별” 대신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조망을 가진 곳이며, 고향에 비하면 “어린애 장난 같았”지만 굶당에서 “굿”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다시 말해 현저동과 주변 동네에 대한 이해가 박적골과의 비교 속에서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대체물로 박적골의 형식을 재구성하면서 현저동을 마음 속에 각인시킨 것이다.

현저동과 “괴불마당집”은 초라하지만 새로운 형식으로 서울에 마련한 ‘박적골’이다. 그래서 현저동은 해방 직전 가족들이 딸의 정신대 소집을 피해 돌아갔던 고향 박적골처럼, 한국전쟁 중에 피난갈 수 있는 새로운 “귀향”의 장소가 된다.

“어머니가 말했다.

「애들아, 우리 현저동으로 가지꾸나」

어머니로부터 현저동 소리를 듣자, 나는 마치 오랜 방탕 끝에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탕아처럼 겸손하고 유순해졌다. 번들거리는 불안한 빛을 빼면 텅 빈 오빠의 눈에도 일순 기쁨 같은 게 어렸다. …(중략)… 내로라고 뽐내는 사람들의 인심에 초개처럼 농락당하고 상처받은 우리는 처음 서울

와서 가장 고난의 시절을 보냈던 빈촌에 아직도 남아 있는 고전적인 가난과 진국스러운 인심을 생각하고 마치 구원의 실마리를 찾아낸 것처럼 밝아지고 있었다. 오빠의 망가진 정신이 어찌면 치유될지 모른다는 희망까지 생겼다. 우리는 마치 귀향처럼 아니, 크고 너그러운 품으로의 귀의처럼 조용한 희열에 넘쳐 허위단심 현저동 꼭대기를 기어올랐다. 골목마다 낮익고 정다워서 우리를 감싸안는 듯했다.”(『엄마의 말뚝 2』, 105쪽)⁹⁾

노년이 된 이후에도 “어머니에게 지금 남아 있는 근거는 박적골 시절이 아니라 현저동 괴불마당집”이 된다(『엄마의 말뚝 1』, 58쪽). 유년 시절의 낙원 박적골로부터의 분리가 서울에 새로운 고향과 대체낙원을 형성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비록 문밖이지만 서울에 박은 최초의 말뚝이라는 “뜻깊은 기념비”는 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현저동에서 생성된 장소감이 어머니로부터 딸에게 전수된 것이며, 딸이 평생 동안 대면해야 하는 의식의 시발점이 된 것이다.

현저동에서 처음 박은 엄마의 말뚝 때문에 형성된 의식을 “문밖의식”이라고 명명한다면, 이것은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해온 대로 단순히 바깥에서 관찰자로 머무는 의식이 아니라 문안에서 뿌리를 내리려는 정주욕구와 분리할 수 없는 의식이다. ‘문밖의식’은 서울에 새로운 안전지대를 만들어 정주하려는 뿌리내림의 의식과 서울의 중심인 문안에 입성하지 못하고 바깥에서 낙원을 마련해야 했던 거리두기 의식의 결합이기 때문이다. 이 의식은 현저동을 통해 형성되어 박완서의 서울 체험과 관찰의 시선을 좌우하게 된다.

그것은 스스로 “실향민”이라 칭했던 박완서의 문밖의식을 일반적인 고향상실이 가져다주는 ‘뿌리뽑힘’의 의식과 구분지어준다. 왜냐하면 문밖은 어머니와 딸이 다른 실향민들처럼 전쟁과 분단 때문에 강제적으로 월

9) 『싱아』에서는 어머니가 현저동을 “우리 동네”라고 부르면서 가지고 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일 것 같은 팔다리에 새로운 힘이 솟았다.”(267쪽)

남하여 정착한 곳이 아니라, 신여성이라는 원대한 이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주하여 힘들게 정착한 곳이기 때문이다. 결국 문밖의식이란 정주와 이탈의 정서가 동시에 작용하는 변증법적 의식이다.¹⁰⁾ 서울의 중심부에 안착하려는 정주의 구심력과 그것으로부터 비판적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바깥 방향으로의 원심력이 팽팽하게 결합된 문밖의식은, 박완서의 서울에 대한 시선의 기원이다. 온갖 험오스러운 변화에도 서울의 중심성에 친착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아무리 오래 서울에 머물러도 완전히 동화되지 못하고 바깥의 의식으로 서울을 중요하게 만드는 이중의 힘인 것이다.

3. 위협받는 문밖의식 : 공포의 전쟁체험

박완서의 소설에서 문밖의식이 도시 안에서의 뿌리내림과 거리두기에 대한 원형적 공간의식을 형성한 기원이라면, 한국전쟁은 문밖의식을 파괴하는 힘에 대한 원체험적 기억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박완서 소설에서 형상화되는 1950년대의 서울은 위협받는 문밖의식에 대한 공포와 절망의 시공간이다. 피난을 가지 못하고 서울 안에서 전쟁의 포성을 들으며 폭력적 상황을 경험해야 했던 박완서에게, 전쟁은 문밖의식의 한 측면인 뿌리내림의 욕망을 위협하는 공포로, 안정된 생활을 지향하는 체제 내적 욕망과 생존경쟁의 장인 서울에 대한 비판적 혐오를 동시에 형성하는 역사적 원체험이었다.

공간체험과 관련하여 전쟁이 문밖의식을 위협하는 공포의 경험이었을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작품은 박완서의 데뷔작 『나목』¹¹⁾으로, 한국전쟁

10) 문밖의식은 도시와 시골을 나누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평가되거나, 서울에 대해서는 고향의 시선을 적용하고 고향에는 서울의 시선을 적용하는 이중적 시선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박철수, ‘박완서의 문학작품을 통해 본 서울 주거공간의 이분법적 시각’,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7집, 2006 참조. 그러나 문밖의식은 서울의 외부와 내부를 모두 포함하는 역설의 의식이라고 봐야 한다.

11) 박완서, 『나목』, 작가정신, 1993.

중의 서울을 구체적으로 다룬 이 작품에서 서울은 도처에 공포가 도사린 공간으로 묘사된다. “번화가인 충무로조차도 어두운 모퉁이, 불빛 없이 우뚝 선 거대한 괴물 같은 건물들 천지였다. 주인 없는 집이 아니면 중앙 우체국처럼 다 타 버리고 윗구멍이 뺨 뚫린 채 벽만 서 있는 집들, 이런 어두운 모퉁이에서 나는 문득문득 무섭을 땀다.” 그것은 “어둡다는 생각에 아직도 전쟁 중이라는 생각이 겹쳐오”기 때문이다. 을지로나 화신 앞에서부터는 “미로처럼 꼬불꼬불한 골목길을 무섭다는 생각에 가위 놀리면서 달음박질”치게 된다(『나목』, 15~16쪽). 이경이 이르는 서울 거리마다 전쟁의 포화를 맞지 않은 곳이 없으며, 공포를 느끼지 않는 곳이 없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시켰기 때문이다.

이경의 내면이 반영된 또 다른 공간은 바로 계동의 흥가이다. 원래 박완서가 논픽션을 쓰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픽션으로 바꾸게 되었던 『나목』은, 종로구 계동의 고가(古家)를 어머니와 딸이 사는 공간으로 삼고 있다. 돈암동 집에서 전쟁을 맞이하고 현저동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돈암동으로 돌아오게 되는 박완서 가족의 실제 경험과 다르게 허구화된 것은, 전쟁 한가운데 있는 서울을 증언하고 그 시기를 견뎌내야 했던 내적 체험을 증언할 때 현실 속에서 온전하게 유지되었던 문밖의 돈암동 집보다 한쪽 지붕이 날라 간 흥가로 설정된 문안의 계동 집이 훨씬 더 적절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PX에서 퇴근하여 돌아올 때마다 마주치는 계동의 고가 풍경은 이 소설에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변주되는데, 여주인공 이경의 내면을 보여주기 위한 가장 적절한 장치로 보인다. “부우연 하늘을 이고 서서 한쪽이 보기 싫게 일그러져나간 채인 우리집의 지붕” “앞에서 내가 누리는 일종의 외경과도 통하는 공포. 나의 하루의 초점이 그 순간에 있고 나는 그것을 추호도 변경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16쪽, 105쪽) 이 집은 경아와 같은 젊은 생명에게 형벌처럼 덧씌워진 공포와 압박의 굴레처럼 묘사되지만, 해체시키고 싶으면서도 또 남겨둬야 할 이중적 심리가 작용하는 대상이다. 그 고가는 가족을 위해 박은 또 다른 엄마의 말뚝이기 때문이다.

“어머니를 이루고 있는 그 부우연 회색”처럼 고가도 회색 하늘을 이고 서 있다. “어머닌 이미 이 고가의 일부”(135쪽)였으며, 잠시 서울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던 “어머니에겐 한쪽 지붕이 달아난 고가만이 모든 것이었다. 어머니는 서울 고가에 대한 집착으로 하루하루 여위어갔다.”(234쪽)

그래서 경이는, 뒤뜰에 은행나무가 서 있던 고가를 해체시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동시에 결혼 이후 가족과 함께 건설한 새로운 낙원에 은행나무들을 잔존시키기를 원하는 이중적인 의식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전쟁에서 탈출하여 “평화”를 찾기 바라는 마음과 어머니의 세계를 현재에도 남겨두려는 의식의 공존이다.

“실상 나는 고가의 해체에 곁들여 나 자신의 해체를 시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남편이 쓸모 없이 불편한 고가를 해체시켜 우리의 새 생활을 담은 새 집을 설계하듯이, 나는 아직도 그의 아내로서 편치 못한 나를 해체시켜, 그의 아내로서 편한 나로 뜯어맞추고 싶었다. …(중략)… 다만 나는 후원의 은행나무들만은 그대로 두기를 완강히 고집했다. 넓지 않은 정원에 안 어울리는 거목들이 때로는 서늘한 그늘을 주었지만 때로는 새 집을 너무도 침침하게 뒤덮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것들의 빛, 그것들의 속삭임, 그것들의 아우성을 가끔가끔 필요로 했다. 그러고 보니 아직도 해체되지 않은 한 모퉁이가 내 은밀한 곳에 남아 있는지도 몰랐다.”(『나목』, 282쪽)

전쟁은 엄마의 말뚝을 파괴하는 힘이였다. 문밖의식이 서울에 말뚝을 박고 안정되게 정착하고자 하는 의식의 기원이라면, 전쟁은 그 말뚝을 위태롭게 하고 뿌리 뽑는 힘의 원체험에 자리잡고 있다. 전쟁은 집의 지붕을 날라가게 할 뿐 아니라, 오빠를 죽음에 이르게 한 파괴의 힘이며, 집에만 머물던 울케를 기지촌 장사꾼으로 만들고, 딸을 PX에서 미군과 화가들을 상대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게 만드는 변화의 힘이다. 딸은 피난지인 다른 도시, “적어도 대구나 부산쯤, 전쟁에서 멀고 집집마다 불빛이 있고 거리마다 사람이 넘치는 곳에 있고 싶었”지만(『나목』, 15쪽), 서

울 한가운데에서 “쪽정이”(『그 산』, 130, 148쪽)로서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박완서 문학에서 1950년대는 한국전쟁 직전 돈암동에 새로운 말뚝을 박는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끝은 말뚝을 뿌리뽑고 파괴시키는 폭력적 과정의 임시적 봉합이다. 현저동 집에서 올케와 단둘이 북으로 끌려가다가 파주 교하를 거쳐 돌아온 딸이 가족과 다시 재회하는 곳은, 어머니와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던 돈암동 집이다.¹²⁾ 『싱아』에서 돈암동 집은 비교적 행복한 장소로 그려진다. 오빠가 자식에게 안정을 주기 위하여 변절한 이후 시골학교 선생이 되어 ‘사택’에 살 것을 꿈꾸고 새 아내가 낳은 아이를 안기 위해 목욕탕에 들러서 몸을 깨끗이 하던 행복한 장소, 그리고 딸이 대학교에 입학하여 “그 해 5월은 유난히 아름다웠다”고 추억할 만큼 황홀한 자유의 꿈을 꾸던 장소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돈암동 집은 가족과 함께 서울에 박은 행복한 말뚝이자 또 하나의 현저동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피난과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면서 돈암동 신안탕 뒷골목집에 대한 묘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변화한다. 북송 대열에서 간신히 도망쳐 돌아온 이 집에서, 두 가족은 숙부가 지게를 지고 숙모는 뚝섬 살곳이 다리 밑에서 푸성귀를 받아다가 돈암시장에서 팔아서¹³⁾ 겨우 목숨을 연명하는 처지로 바뀐다. 때로 피난과 상경을 되풀이할 때도 있지만 줄곧 서울 한복판에서 죽음의 공포를 견디

고, 결국 싸늘한 시체가 된 오빠를 하루 만에 파묻어버린 처참한 경험들이 돈암동 집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서울에서 안정된 정착을 꿈꾸는 욕망을 더 강하게 만드는 동시에, 생존경쟁의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조건을 무시당하는 서울이라는 공간에 대해 외부자로서 가질 만한 비판적 혐오감을 동시에 생성시키고 있다.

다른 작품들과 비교하여 박완서의 한국전쟁 이후 생존경쟁의 장으로 변모한 서울에 대한 시각을 엿볼 수 있는 것은, 당시의 가장 변화했던 장소인 PX(현 신세계백화점) 주변 남대문시장 일대에 대해 『그 산』과 『나목』에서 묘사한 부분일 것이다.

“육이오 때 전화를 입지 않고 멀쩡하게 남아 있는 건물은 피엑스밖에 없었다. 무너져 내린 벽돌과 시멘트 더미 사이에서 여름에 돌아난 풀이 말라 죽은 게 몇백 년 묵은 폐허를 방불케 하는 공터 사이에 불쑥불쑥 남아 있는 건물들도, 겉모양은 멀쩡해도 속이 불 타지 않았으면, 높은 칸막이처럼 벽만 서 있고 지붕은 뚫린 건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대에는 사람들이 미친 듯이 모여들어 사고 팔고 속고 속이고 훔치고 구걸하느라 마음껏 흥청 대고 있었다.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이국적인 활기와,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천박의 근원지가 바로 피엑스였다. 피엑스를 중심으로 남대문시장 쪽의 번영과 화려가 오직 피엑스에서 흘러 나온 미제 물건을 주로 취급하는 양키 시장 덕이라면, 그 반대쪽에 출행량처럼 즐비한 가건물마다 들어선 한국 토산품점이 한국 사람에게도 낯선 온갖 잡화와 조잡한 수예품을 미친년 키질하듯 덮어놓고 휘둘러대며 달려를 만져 볼 수 있는 것은, 피엑스를 드나드는 외국 군인들 때문이었다.”(『그 산이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 228쪽)

이 대목은 처참한 폐허에 대한 묘사와 함께 그 공간을 채운 생존경쟁에 대한 경멸을 보여준다. 남대문시장이 천박한 것은 미제 물건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랍시고 내세운 물건들이 외국 사람 아닌 나에게 오

12) 한국 전쟁 전까지 가족은 돈암동에서만 세 번 이사를 다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묘사되고 있는 집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는 성북경찰서 주변 신안탕 뒷골목의 돈암동 집이다. 여러 작품에서 묘사되었듯이 안채가 넓고 딸이 ‘독방’까지 쓸 수 있을 정도로 번듯했던 작은 숙부네 집에 대한 서술은, 1940~50년대 서울의 중산층 지역에 대한 문학적 재현이다. 실제로 일제 하 경성부의 대표적 토막촌이었던 돈암동은, 1936년 영등포 지구와 함께 일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택지로 선정되면서 빈민촌에서 신시가지로 거듭난 곳이다. 특히 1939년 돈암동은 창경궁 노선이 연장된 전차 노선의 종점이 되면서, 관청, 회사, 은행, 학교, 공장 등에서 근무하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신중주거단지가 되었다.

13) 박완서,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웅진, 2005, 139쪽. 이하 『그 산』으로 표기하고, 본문에서 쪽수만 밝힘.

히려 낮설고 정이 안 간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팔아먹을 것의 고갈, 그렇지만 팔아먹지 않고는 연명할 도리가 없는 상태, 그런 것이 바로 가난의 생태가 보다.”(『나목』, 125쪽)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에서 전쟁 통의 남대문 시장이 남지영이라는 인물을 통해 생명력 넘치는 활기의 현장¹⁴⁾으로 전장을 초월하는 공간으로 묘사되었던 것과 달리, 박완서의 소설에서 PX와 그 일대의 남대문시장은 전쟁 속에서 생존을 위해 저열함을 감수하는 천박한 공간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인식은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화에 따른 도시의 생존논리와 물질적 욕망에 대한 혐오감으로 연장된다.

결국 박완서 문학에서 전쟁은 서울을 벗어나고 싶은 원심적 욕망과 도저히 서울을 벗어날 수 없는 구심적 상황을 동시에 체험하게 했다. 아울러 전쟁은 서울에 정착하기를 바라는 문밖의식의 한 측면을 위협하는 공포의 체험이자, 생존경쟁을 둘러싸고 저열하고 천박한 경주가 벌어지는 도시공간에 대한 비판적 혐오를 형성시키는 원체험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중심에서 뿌리 내려야 한다는 의식은 혐오스러운 도시의 욕망과 풍속들과 분리 불가분의 것처럼 보이는 박완서 특유의 문학적 태도를 형성시키는 원인이 된다. 즉 전쟁체험을 통해 문밖의식의 이중적 측면 중 뿌리내림의 욕망이 도시공간의 중심부에서 소용돌이치는 물질적 욕망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인물들로 변형되었다면, 서울에 거리두는 외부자로서의 의식은 서울의 천박함에 대한 깊은 혐오감으로 변형된다.

4. 공모와 혐오의 경계 : 도시 중산층의 자의식

1970년대부터 왕성히 작품활동을 전개한 박완서가 가장 활발히 주목한 것은 소위 ‘도시의 세대풍속’이라고 알려진 중산층과 서민들의 일상적 생

활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본격적인 자본주의화, 산업화, 도시화의 흐름 속에서 일어난 생활의 변화와 그 속에서 여성의 자의식이 겪는 강렬한 거부와 타협의 움직임들은, 박완서 특유의 현실인식과 감각을 보여주는 중요한 테마이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도시의 변화를 바라보는 박완서 문학의 시선은 이 변화에 대해 마치 바깥에 있는 사람처럼 혐오감을 역력히 드러내면서도, 그 변화가 동반하는 여러 풍속들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내적 공모자 같은 면모를 동시에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실제로 박완서의 1970~80년대 소설들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중산층의 허위의식에 냉소 섞인 거부감을 느끼면서도, 도시의 위악적인 세태풍속에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휘청거리는 오후』와 『도시의 흉년』처럼 대중성을 띤 장편에서부터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지렁이 울음소리」, 「닭은 방들」 등을 비롯한 단편들은, 자본주의가 가르치는 욕망을 거부하지 못한 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충실하게 따르는 여성들의 모습을 다룬다. 박완서는 화려한 겉포장 뒤에 도시 중산층들의 숨겨진 가식과 속물성에 대해 강렬한 냉소를 보내는 이 여성들의 내면을 묘사하되, 자신의 꿈틀거리는 자의식을 자발적으로 억압하고 자본주의 논리에 저항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속물적인 삶을 추종하는 면모마저 보여준다.

박완서 소설의 이러한 특성은, 도시화를 다룬 그녀의 대부분의 소설들을 대중성과 통속성의 차원 또는 황금만능주의와 배금주의의 충실한 재현의 측면에서 논의되게 만든 중요한 원인이다. 즉 자본의 논리에 대해 어떠한 거부의 제스처로도 이어지지 않는 은밀한 공모의식이 내재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작품들에서 생생하게 꿈틀거리고 있는 여성들의 냉소적 자의식은, 실질적으로 내적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도시 중산층들의 가식과 속물성을 더 실감 있게 드러내기 위한 장치 정도에 그치는 것처럼 간주되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뿌리내림의 욕망과 중심부의 삶에 대한 지향이 점차 사회의 주류적 삶에 스며드는 자본주의적 행태에 대한 집요한 관심으로 변형된 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

14) 박경리, 『시장과 전장』, 나남, 1999, 131쪽.

밖의식이 변형된 박완서의 소설들은 그렇게 일면적이지 않다. 『휘청거리는 오후』와 『도시의 흥년』에 등장하는 딸들은 안정된 삶에 대한 물질적 풍요에 대한 애정과 함께, 그것과 상반되는 끔찍할 정도의 자기 혐오감을 거리낌 없이 드러낸다. 도시 상류층의 물질주의에 대해, 문자 그대로 ‘애증’의 이중성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박완서의 1970~80년대 텍스트들은, 자본주의화에 따른 물질적 욕망의 범람과 도시화의 파괴적 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텍스트의 이면에 회한처럼 숨겨놓고 있다. 예컨대 「엄마의 말뚝 1」의 마지막은, 현저동의 “괴불마당집이 있던 근처에 연립주택이 병풍처럼 들어서면서 인왕산을 쳐다보지도 못하게 가리”게 되는 상황에 대한 감상을 담고 있다. “엄마의 말뚝은 뽑힌 것이다.”(59쪽) 박완서 문학에서 1970~80년대 한국에서 진행된 급속한 도시화는 ‘엄마의 말뚝’을 무너뜨리는 일종의 소리 없는 전쟁으로 이해된다. 『나목』에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전쟁이 몇 번이고 되풀이될 테고 그 사이에 전쟁은 사람들에게 재난을 골고루 나누리라고, 나는 다만 재난의 분배를 먼저 받았을 뿐이라고”(『나목』, 48쪽) 되뇌이는 경아의 한이 섞인 독백은, 1970년대 서울의 급속한 도시 개발과 자본주의화를 바깥에서 일종의 ‘파괴’로, 재난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예언이라고 할 만하다.

더 나아가 박완서의 다른 소설들은 사람들이 힘들게 박은 말뚝을 아무렇지도 않게 뽑아버린 후 거기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망각하게 하는 도시화의 파괴적 힘에 대해 서글픈 회한 정도의 감상에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현실 그 자체를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예컨대 1978년 작인 「낙토의 아이들」들은 1971년 영동지구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1976년 서초구 반포지구, 압구정 지구, 청담지구, 도곡지구 등에 아파트 등이 건설되면서, 한강 이남의 “황무지”가 황금알을 낳는 “낙토”로 변모하는 과정과 부동산 투기 붐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텍스트이다. 그것은 1970년대 서울에서 일어난 가장 근본적인 변화로, 서울의 중심이 강북의 구시가지에서 강남으로 이동하는 대대적인 변화였다.

“나의 넓은 서재에 딸린 화장실 변기에 앉으면 작은 복창으로 멀리 퇴락하고 조잡한 구시가가 안개 같기도 하고 먼지 같기도 한 불투명한 잿빛 속에 잠겨 있는 게 보인다. 그리고 흐르고 있는 건지 정지하고 있는 건지 분명치 않은 탁한 강이 보인다. 차의 왕래가 빈번한 튼튼하고 드넓은 다리가 탁한 강의 이쪽과 저쪽을 이어주고 있지만 구시가에 대한 친근감은 거의 없다. 막연한 혐오감이 있을 뿐이다. 무릉동 사람들이 썩은 강이라 부르는 강이 그런 거리감을 만들어주고 있는지, 구시가에 대한 혐오감이 멀쩡한 이름 있는 강을 썩은 강이라 천대하게 됐는지 그것까지는 확실하지 않다.

아무튼 무릉동 사람들은 아이들이 강가에 가서 노는 걸 막기 위해 아이들에게 미리 강에 대한 호기심 대신 공포를 가르쳐야 했다. 강은 구시가의 공장에서 버리는 독이 있는 물과, 구시가의 가난뱅이네 구식 뒷간에서 직접 흘러내리는 똥오줌 때문에 썩었노라고 죽었노라고, 거기 손이나 발을 담그는 일은 똥통에 손발을 씻는 것만큼이나 비위생적인 일이라고 가르치고 또 가르쳤다. 그래 그런지 강가의 모래사장이나 풀밭에 아이들이 나와 노는 걸 본 일이 없다.”¹⁵⁾

새롭게 개발되는 강남의 신시가지 ‘무릉동’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은, 부모들이 “좀더 긴 안목으로 탄탄한 출셋길”을 만들고 아이들이 그 속에서 누리는 경제적 안정의 허구성을 사회 부적응자의 시선을 통해 재현한다. 그리고 한강을 경계로 구시가와 신시가, 즉 강북과 강남이 위계화되는 현상을 포착한다. 한강이라는 공간적 분할선, 빈민과 중산층을 가르는 위생관념, 높은 교육수준이라는 새로운 공간적 구별짓기의 기준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대문을 둘러싼 성벽을 중심으로 문안과 문밖을 가르는 어머니의 기준 대신, 서울의 도시공간을 가르는 새로운 기준선이 등장한 것이다.

박완서는 사대문의 안과 밖이라는 낡은 경계를 파괴시키고 그것에 대

15) 박완서, 「낙토의 아이들」, 『배반의 여름』, 문학동네, 2006, 317~318쪽.

한 기억조차 말소시키는 도시개발의 힘을 체험한다. 「엄마의 말뚝 1」의 마지막 장면에서 딸은 “오빠한테 회초리를 맞던 허물어진 성터의 이끼 낀 돌은 지금 어디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진다. 역설적이게도 딸은 몇십 년 후에야 엄마가 그토록 강조했던 문안과 문밖을 가르치는 ‘성벽’을 실제로 발견하게 되지만, 이미 퇴색해서 마치 “신흥 부잣집 담장”처럼 보이는 그 성벽은 더 이상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 자본주의의 논리 속에서 진행되는 서울의 거대도시화가 사실상 도시공간에 새겨져 있던 장소성을 모두 지우고 망각하게 만드는 일종의 재난이자 파괴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도시의 변화가 보여주는 ‘무장소성’은 더 이상 서울과 다른 도시를 구별할 수 없게 만든다. 박완서의 1982년 작 「유실」은 술 때문에 간밤의 기억을 잃고 여관방에서 깨어난 주인공이 아침에 자신이 걷는 낯선 거리가 서울의 어느 곳인지 추측하려고 애쓰지만 도무지 알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대목을 담고 있다.

그는 그 거리가 어딘지 짐작도 할 수 없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서를 얻으려고 간판을 열심히 읽으면서 걸었지만 허사였다. 뉴욕, 해운대, 몬테칼로, 명동, 구라파식, 극동, 우주, 너랑 나랑, 도쿄, 태평양... 이런 이름들을 달고 있는 상점들을 보면서 거기가 시내 어디쯤인지는커녕 어느 나라인지조차 헷갈릴 지경이었다. 궁중무술관이라는 간판이 붙은 제법 큰 빌딩에서 유흥가가 꺾이면서 버스가 다니는 한길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궁중에 따로 무술이 있었던가? 그는 궁중무술관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거리가 어디일까? 라는 의문처럼 해답이 얻어질 것 같지 않았다. 버스가 다니는 한길까지 나왔는데도 거기가 어딘지 모르긴 마찬가지였다.¹⁶⁾

그가 기억을 잃은 채 서울의 어느 곳인지 파악하려고 애쓰는 이 거리는, 광주리 장수에게 ‘태평동’이라는 대답을 듣고서도 파악되지 못하다가

16) 박완서, 「유실」, 『엄마의 말뚝: 박완서 소설전집 7』, 세계사, 1994, 161~162쪽.

결국 택시를 기다리는 청년으로부터 “성남시지 어딘 어디예요”라는 짜증 섞인 대답을 듣고서야 서울이 아닌 성남으로 판명된다. 그러나 그가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얼마 안되는 거리의 간판 속에 명동과 해운대, 뉴욕과 도쿄를 넘나드는 지명과 심지어 극동과 우주처럼 광범위한 공간명칭들이 섞여 있는 풍경은 성남시만의 특성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흔히 보는 광경이다. 어떤 장소감도 형성시킬 수 없는, 특성 없는 도시 경관이 여러 도시들을 무질서하게 그러나 획일적으로 지배하게 된 것이다.

박완서는 ‘도시화’가 말뚝을 뽑는 불도저의 힘이기도 하지만, ‘망각’의 힘이라는 사실을 포착한다.¹⁷⁾ 1973년에 씌어진 또 다른 소설인 「부처님 근처」에서 ‘나’는 한국 전쟁 당시 억울하게 죽어간 아버지와 오빠에 대한 기억에 시달리다가, “그 시대를 보는 눈이 관대해졌다는 건 그만큼 무관심해졌다는 의미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친척들 중에도, 친구들 중에도 그까짓 이십 년 전의 난리 때 일어났던 일을 대수로운 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의 관심은 땅을 도봉지구에 사 두는 게 더 유리한가 영동지구에 사 두는 게 더 유리한가에 있었고, 사채 놀이의 수익이 더 높은가 증권 투자의 수익이 더 높은가에 있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어떡하면 더 잘살 수 있나에 대해 곤충의 촉각처럼 예민할 따름이었다.”¹⁸⁾ 오빠의 죽음을 망각하게 하고 역사적 상처를 흔적도 없이 지우는 것이 바로 도시화의 진정한 결과이다. 박완서의 문학은 물질주의적 이윤추구에 기반한 서울의 도시화가 삶을 파괴하고 전쟁의 상처를 망각하게 하는 또 다른 재난이라고 말하고 있다.

1986년 발표된 「꽃을 찾아서」는 도시개발이 낳는 ‘망각’의 효과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작품이다. 이윤추구를 향해서 움

17) 박완서는 아파트 주변의 작은 동산이 어느날 불도저에 의해 뭉개지는 것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불도저의 힘보다 망각의 힘이 더 무섭다. 그렇게 세상은 변해간다. 나도 요샌 거기 정말 그런 동산이 있었을까, 내 기억을 믿을 수 없어질 때가 있다. 그 산이 사라진 지 불과 반년밖에 안 됐는데 말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현재의 잘 사는 세상의 기초가 묻힌 부분”이라고 지적한다. 『그 산』, 7쪽.

18) 박완서, 「부처님 근처」,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문학동네, 2006, 111쪽.

직이는 도시개발은 역사에 대한 망각을, 체험과 기억의 소멸을,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억상실을 동반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땅 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삶에 대한 망각이다.

“불도저가 밀고 압착한 건 땅이 아니라 이 시대의 가장 미천한 삶이었다. 그 삶의 터전은 우리 눈앞에서만 사라졌을 뿐 앞서 사라진 삶의 궤적 위에 다 시루떡처럼 또 한 켜를 보냈으리라. 그 한 켜는 비록 백제의 해자나 신라의 금관, 고려의 청자처럼 어느 날 문득 천년의 세월을 떨치고 일어나는 일은 없을지라도 영원히 한 켜 지층으로 남아, 조용하게 구정물도 거르고, 이름 모를 풀과 흰비름꽃처럼 보잘것없는 들꽃도 키우겠지. 장명환씨는 그의 짧은 날, 미숙하고 미련한 부정(父情)이 피맺힌 손톱으로 이 땅에 보낸 것도 어딘가에서 사라지지 않는 지층을 이루었으리라 믿으며 눈시울을 적시었다.”¹⁹⁾

이 구절은 은퇴한 노인인 장명환씨가 개발을 위해 하룻밤 사이에 조용히 사라진 아파트 앞의 철거 현장을 바라보며 느낀 소회이다. “최근까지도 변두리 영세민들이 우범지대란 소리를 들어가며 치열하게 아귀다툼하던 곳의 흙을 아무런 느낌이 없는 무쇠 손으로 저리 함부로 급하게 파헤쳐도 되는 걸까”(411쪽) 하는 의문은, 현저동이 무참히 파괴되어 사라지는 현실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그것은 막연히 과거의 기념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밀집된 궁상’ 속에서 살던 사람들의 삶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완서가 도시화를 재현하면서 보여주는 특징적인 사실은, 이 망각과 파괴의 도시화가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지우면서 형성된 새로움이 아니라 사실상 전쟁이 형성한 가치들의 부단한 재생산이라는 사실이다. 박완서는 도시개발 논리를 부추기는 힘이 국가의 강제적인 도시정책에서만

19) 박완서, 『꽃을 찾아서』, 『저녁의 해후』, 문학동네, 2006, 418쪽.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공포와 이후 생존경쟁의 장에서 형성된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추악한 물질적 욕망이 이를 증폭시킨 원인이라는 점을 포착하고 있다. 그녀의 소설 『카메라와 워커』는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소설이다. 이 텍스트는 1970~80년대 한국 사회가 보여주는 안정된 삶에 대한 지향이 사실상 전쟁 중에 형성된 내적 가치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빠와 아버지를 잃은 고모가 젊은 세대인 훈이가 “이 땅에 뿌리내리기 쉬운 가장 무난한 품종”으로 성장하기 바랐던 마음은, “그때 그 지랄같은 전쟁”에서 보고 배운 것 때문이다. “제가 잘되고 잘사는 것”만이 “내가 겪은 더럽고 잔인한 전쟁에 대해 통쾌한 복수”가 되고 “그때 받은 깊숙한 상처의 치유”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²⁰⁾ 그러나 이 소설의 결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얼마나 뿌리내리기 힘든 고장인가” 하는 탄식과 혼란으로 마무리된다. 고모가 뿌리내리기의 당위성과 그것을 향한 욕망을 보여준다면, 훈이는 뿌리내리기의 어려움과 안정성에 대한 거부감을 보여주는 존재이다. 두 인물은 박완서가 당대 현실을 바라볼 때 기본적으로 전제하던 역사적 인식의 상징적 대립축인 셈이다.

이처럼 1970~80년대 도시 중산층의 일상과 풍속을 다룬 박완서의 여러 소설들은 주류적 삶으로부터 역겨움을 느끼는 강렬한 자의식과 동시에 그 중심부의 풍속을 따라가려는 욕망들을 끈질기게 잡아두고 있다. 그것은 도시화를 바라보는 문밖의식의 이중성 때문이다. 내부와 외부의 경계에서 양가성을 버리지 않는 박완서의 문밖의식은, 전쟁을 통해 뿌리내림의 욕망과 생존경쟁에 대한 혐오로 변모된 이후, 자본주의적 욕망이 지배하는 서울의 도시공간을 완전히 뿌리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흔쾌히 받아들일 수도 없는 끊임없는 애증의 대상으로 재현하게 만든다. 그것은 흔히 비판받아온 것처럼 자본과 공모하려는 은밀한 의식의 발로 때문만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전쟁처럼 도망갈 수 없는 도시화의 운명과 자본주의화의 파괴적 힘으로부터 자신의 공간을 지켜야 하는 문밖의식이

20) 박완서, 『카메라와 워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381쪽, 366쪽.

도시의 생존논리에 대한 혐오와 동시에 뿌리내림에 대한 욕망을 버릴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5. 역사적 증언으로서의 박완서 문학

박완서의 1970~80년대 소설은 줄곧 도시공간의 현실과 그 속에서 움직이는 자본주의적 욕망과 현실을 다루면서도, 도시적 감수성에 침윤되지 않은 채 도시의 삶이 왜 이렇게 추악하고 속물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가를 관찰한다. 그 시선에 서울의 중심에 뿌리박고자 하는 의식과 그것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의식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박완서의 문학은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현실을 수용하는 면모와 냉정하게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양가적 태도를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당대 자본주의의 현실이 전쟁의 공포 이후 내면화된 가치들로 형성되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진행되는 자본주의 도시화가 일종의 망각과 재난으로서 역사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포착한다.

그것은 도시화와 자본주의화를 바라보는 박완서의 심층의식이 서울의 도시공간 속에서 겪었던 한국 현대사의 경험 속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현저동에서 형성된 박완서의 문밖의식은 서울에 정착하려는 뿌리내림의 욕망과 서울의 바깥에서 현실을 관찰할 수 있는 의식을 동시에 생성시켰으며, 그것은 어머니의 세대가 딸의 세대에게 만들어준 조건이었다. 아울러 서울을 떠나지 못한 채 경험한 전쟁의 극한적인 공포는 문밖의식을 위협하면서 안정된 정주에 대한 욕구를 더욱 더 공고한 것으로 만들었으며, 문밖의식을 파괴하는 도시화의 힘들을 엄마의 말뚝을 뿌리 뽑는 재난과 상실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박완서가 1970~80년대 서울의 도시화와 자본주의화를 재현하는 태도는 이러한 역사적 경험들에서 형성된 것이며, 그것은 단순히 자전적 체험의 소산이 아니라 당대의 현실을 역사적 경험 속에서 반추하여 재구성하려는 비판적 의식의 발로였다고

할 수 있다.

박완서 소설의 주요 주제처럼 평가되는 자본주의 도시의 세대풍속들은 이러한 역사적 공간의식을 통해 재현된다. 1970~80년대에 씌어진 일부 소설들의 대중성과 통속성은 도시의 일상적 삶에 침투한 천박한 자본주의의 논리에 저항하지 않는 인물들을 통해 드러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비판적 의식의 소멸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적 체험을 통해 동시대 도시공간의 현실을 양가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 작가의식의 산물이다. 왜냐하면 당대적 삶의 현실논리를 체화한 그 인물들이 보여주는 것은 역사, 일상, 자연에 대한 폭력적 태도들이며, 박완서의 문학은 이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잊지 않고 있다. 또한 그녀의 작품들은 1970년대 이후의 자본주의화가 끊임없는 새로움의 도입 뒤에 숨겨놓은 역사적 기원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그들의 삶과 지향하는 가치가 전쟁으로부터 형성되었다는 것을, 아니 이미 그 이전부터 어머니의 세대가 딸에게 물려준 의식으로부터 생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박완서가 보여준 도시공간의 속된 삶들은 한국의 현대사의 진행과정 속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내면적 가치들이 자본주의적 현실과 결합될 때 나타나는 양상들을 가장 실감 있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망각하고 있는 것, 부끄러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덮어버린 것들의 재구성이자 소환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박완서의 문학은 세대풍속의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현재 속에서 망각된 상처와 진술 불가능한 치부를 드러내는 글쓰기로서, 우리가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한 채 묻어버린 진실들을 소환해내는 증언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 증언들은 언제나 공식적 기록이 채우지 못하는 역사적 현장의 대목들, 사람들의 욕망과 무의식, 사회적 관계와 의미망의 실상을 가득 채우고 있다. 그곳은 체험적 사실성의 테두리로 좁혀질 수 없는 사회현실의 의미망들을 촘촘하게 새긴 채, 망각되거나 지나치는 것들, 그래서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날카로운 눈썰미로 분석해주시기를 기다리는 역사적 증언의 세계이다.

참고문헌

권명아, 「박완서: 자기상실의 ‘근대사’와 여성들의 자기찾기」, 『역사비평』 45호, 1998, 389~410쪽.

권명아, 「박완서 문학 연구-역척모성의 이중성과 딸의 세계의 의미를 중심으로」, 『작가세계』, 1994, 332~350쪽.

김양선, 「증언의 양식, 생존·성장의 서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 15집, 2002, 144~165쪽.

김영희, 「근대체험과 여성」, 『창작과비평』 제89호, 1995, 69~92쪽.

김윤식, 「박수근과 박완서-나목에 이른 길」, 『낮선 신을 찾아서』, 일지사, 1988, 41~66쪽.

김은하, 「완료된 전쟁과 끝나지 않은 이야기」, 『실천문학』 2001년 여름호, 258~272쪽.

김은하, 「애증 속의 공생, 우울증적 모녀관계-박완서의 『나목』론」, 『여성과 사회』 제15호, 2004, 112~130쪽.

김주연, 「순응과 탈출」, 『변동사회와 작가』, 문학과지성사, 1979, 119~133쪽.

송명희·박영혜, 「박완서의 자전적 근대 체험과 토포필리아-『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 20집, 2003, 43~70쪽.

박철수, 「박완서의 문학작품을 통해 본 서울 주거공간의 이분법적 시각」,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17권 2호, 2006, 63~75쪽.

성민엽, 「윤리적 결단과 소설적 진실」, 『지성과 실천』, 문학과지성사, 1985, 119~131쪽.

신현순, 「박완서 소설의 서사공간 연구」, 목원대 박사학위논문, 2008.

유중호, 「불가능한 행복의 질서-박완서의 소설」, 『동시대의 시와 진실』, 민음사, 1995, 422~437쪽.

이남호, 「<말뚝>의 사회적 의미-박완서론」, 『문학의 위족 2』, 민음사, 1990, 132~138쪽.

이경호·권명아 편, 『박완서 문학 길찾기: 박완서 문학 30년 기념비평집』, 세계사, 2000.

이선미, 『박완서 소설 연구-분단의 시대경험과 소설의 형식』, 깊은샘, 2004.

전상인, 「6.25전쟁의 사회사: 서울시민의 6.25전쟁」, 『한국과 6.25전쟁』, 유영익, 이채진 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175~221쪽.

【Abstract】

The Urbanization seen from a Suburbanite Consciousness

-Seoul and the Park Wanseo's Literary Representation-

Song, Eun-young

Park Wanseo was a writer who consistently represented the urbanized and capitalized daily life in modern Korean history. A historical consciousness stemming from her own experiences as a daughter's position given by mother--moving into the city of Seoul and living through the Korean War-- lied in her literary text.

A suburbanite("moonbak") consciousness was an origin in which combined a desire for settlement in Seoul with keeping her distance from Seoul. This ambiguous consciousness had influenced on her observation and literary representation on Seoul. The fearful experience of Korean War transformed her space-consciousness into both a desire for rootage in Seoul and her disgust at Seoul.

The urbanized and capitalized daily life which she adhered to in 1970s-80s' many novels and short stories, was based on such a historical experiences and paradoxical consciousness. At a casual glance, her literary texts seems to be obedient to the logics of capitalism. But Her texts shows that the urbanization stemmed not from urban policy of government but from ugly values and selfish desire throughout historical experiences of the struggle for existence in the Korean War. They were involved with a critical consciousness about Korean rapid urbanization and vulgar capitalistic reality which make forget their history, extinguish diverse experiences, cause placelessness of city and force to lose beautiful

memories of nature.

Key words : Park Wanseo, suburbanite("moonbak") consciousness, substituted paradise, ambiguity, desire for settlement, Hyunjeo-dong, the Korean War, the struggle for existence, capitalized city, placelessness, urbanization as oblivion and disaster

■ 본 논문은 4월 30일에 접수되어 5월 7일부터 23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5월 26일에 게재 확정되었음.